인문논총 제60집(2008), pp. 269~299

劉因의 詩論과 詩

宋 龍 準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1. 머리말

中國詩史에서 元詩가 차지하는 위상은 아직도 매우 낮아서 淸代의 宗唐詩派에 속했던 朱彝尊 같은 이도 元詩와 宋詩를 비교하여 "사람들은 모두 문장에 있어서는 宋이 元보다 낫고 시에 있어서는 元이 宋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이는 시에 있어서도 宋이 元보다 뛰어남을 모른 것이다"[1]라고 평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元代에서도 詩는 여전히 정통문학의 지위를 지키며 꾸준히 재생산되어 번영과 보급에 있어서 결코 唐·宋代에 뒤떨어지지 않았고, 그 성과 또한 눈여겨 볼만한 것이어서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갈 필요가 있다.

元代 詩人과 詩歌의 총수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淸代

1) "人皆謂宋之文高于元, 元之詩高于宋. 殊不知宋之詩亦高于元也."(『靜志居詩話』 卷四)

주 제 어: 원시, 유인, 정수집, 북방시, 화도시, 당시적 심미의식, 송시적 설리기능
元詩, 劉因, 靜修集, 北方詩, 和陶詩, 唐詩的審美意識, 宋詩的說理機能

康熙 48년(1709) 張豫章 등이 皇命에 의해 편찬한『御定四朝詩』의 元詩 부분을 살펴보면 1,200여 명의 작가와 11,525首의 시가 선록되어 있고, 康熙 33년(1694)에 간행을 시작하여 康熙 59년(1720)에 끝낸 顧嗣立의『元詩選』에 339명의 작가와 19,574수의 시가 선록되어 있고, 그 후 席世臣・顧果庭이 이어 편찬한『元詩選癸集』에 1,900여 명의 작가와 5,058수의 시가 선록되어 있어서, 元代의 詩文總集과 詩文別集 등을 조사해보면 이름을 남긴 시인의 수는 4,000명 정도가 되고 시가의 총수는 약 124,000수에 달한다.[2] 역시 康熙帝 때 칙찬된『全唐詩』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수가 2,300여 명 48,900여 수이고, 1998년에 北京大學 古文獻研究所에서 발간을 완료한『全宋詩』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수가 9,300여 명 270,000여 수인 것과 비교해보면 결코 그 규모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3] 이와 같은 元詩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宗唐復古[4]가 시대의 조류이자 기풍이었으며, 前代 詩風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거치고 南北 復古詩風이 합류된 것이 元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元詩를 가지고 볼 때 元初의 북방 詩壇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사람으로 劉因(1249-1293)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劉因은 字가 夢吉이고 號가 靜修이며, 雄州 容城(지금의 河北에 속함) 사람이다. 그가 탄생하기 전날 밤 부친이 꿈에서 神人이 한 어린아이를 말에 싣고 그의 집으로 와서 잘 기르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애초에는 그의 이름을 劉駰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劉因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諸葛亮의 말인 '靜以修身'을 좋아하여 居室의 이름을 '靜修'라고 하고, 아울러 別號로 삼았다. 또한 樵庵・雷溪眞隱이라는 號도 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元나라가 金나라를 멸망시킨 지 이미 십 수 년이 지난 뒤였지만 부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劉因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여섯 살에 시를 지을 줄 알았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性理學을

2) 楊鐮『元詩史』36-59쪽 참고.

3) 元代는 존속기간도 짧았고, 이민족이 통치하던 때라 出仕하지 않은 민간 시인이 많았으므로 시인과 시의 수집과 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4) '宗唐復古'란 古體는 漢・魏・兩晉을 본받고, 近體는 唐을 본받는 것을 말한다.

깊이 탐구하였다. 성년 이후에 그는 고향에서 두문불출하며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南宋 멸망 후에는 강남 지역을 두루 여행하였다. 元 至元 19년(1282)에 承德郎・右贊善大夫로 발탁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의 병환을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至元 28년(1291)에 다시 集賢學士로 조정에 소환되었지만 병을 핑계로 고사하였다. 이 때문에 元 世祖 쿠빌라이는 그를 '不召之臣'으로 간주하였다. 그가 죽은 뒤, '文靖'이라는 시호를 추서하였다.

劉因은 元代 前期의 시인이면서 동시에 저명한 儒者이기도 했다. 그는 초년에 經學章句를 공부하였고, 후에 程・朱 理學으로 전향했지만 程・朱의 문호를 고수하지는 않았다. 虞集(1272-1348)은 그를 칭송하여 "내가 우리 왕조가 남북을 통일한 초기를 살펴보건대 북방의 학자로서 고명하고 굳셈에 있어서 누가 劉因보다 낫겠는가!"[5]라고 하였고, 淸人 全祖望은 그와 許衡을 칭송하여 '元北方兩大儒'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성향은 許衡과 달랐다. 許衡은 元에 출사하여 '漢法'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지만, 劉因은 元 王朝에 出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陶宗儀『輟耕錄』의 기재에 의하면 許衡이 世祖 中統 元年(1260) 초빙에 응하여 大都로 갈 때 劉因이 그에게 묻기를 "한번 초빙하자 공이 응한 것은 너무 서두른 것 아니오?"라고 하니, 許衡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가 실행되지 않기(不如此則道不行)"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至元 연간에 劉因이 두 차례 관직을 사양하자 어떤 이가 그 이유를 물으니 劉因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가 존귀하지 않기(不如此則道不尊)"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明代의 시론가 李東陽은 劉因과 '元詩四大家'의 으뜸인 虞集의 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元代의 選集에 이르러서는 오직 劉靜修(劉因)과 虞伯生(虞集) 두 사람만이 名家가 될 수 있는데,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늘

5) "以予觀乎國朝混一之初, 北方之學者, 高明堅勇孰有過于靜修者哉!"(『安敬仲文集 ・序』)

> 劉因 편에 섰다. …… 나 홀로 이르건대, 大將의 牙旗를 높이 걸고 위풍당당하게 강적을 공격하여 예기를 꺾는 데 있어서는 劉因이 조금 낫다. 만약 예봉을 감추고서 기발한 방법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마치 구슬이 쟁반 위를 굴러가듯 하고 天馬가 하늘에서 내달리듯 하여 처음에는 그 묘함이 보이지 않지만 탐구할수록 깊이가 있고 끌어당길수록 길어짐에 있어서는 虞集에게 취할 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道學名節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詩論인 것이다.[6]

한편 明代의 詩論家 胡應麟은 劉因의 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 劉因은 옛 것에서 陶淵明의 冲淡을 선택하여 배웠는데, 좋은 구절은 있어도 훌륭한 작품은 없다. 歌行은 杜甫를 배워 「龍興寺」「明遠堂」 등의 작품은 노련한 필치를 거침없이 구사했는데, 비록 간간이 宋人의 기색이 있긴 하지만 儒生의 티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元代에서 칠언시가 고아하면서도 힘찬 것은 다만 이 사람 뿐이다. 율시와 절구에 이르러서는 갖가지 書生氣를 드러내어 매우 싫다.[7]

胡應麟이 劉因의 칠언고시를 元代 詩壇에서 으뜸이라고 본 반면에 그의 律詩와 絕句를 매우 낮게 평가한 것은 그가 이 詩體를 통해 즐겨 의론을 담아냈기 때문이겠지만, 대단한 혹평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그의 시를 일컬어 "風格이 고매하고, 比興이 심오하고 미묘하여 작가의 반열에 뛰어올랐다. 講學의 여러 선비들은 그에게 미칠 수 있는 자가 없다"[8]라고 공인하였고, 『元詩選』의 편찬자인 淸 顧嗣立은 劉因을 일

---

6) "極元之選, 惟劉靜修虞伯生二人, 皆能名家, 莫可軒輊. 世恒爲劉左袒. ……予獨謂高牙大纛, 堂堂正正, 攻堅而折銳, 則劉有一日之長. 若藏鋒斂鍔, 出奇制勝, 如珠之走盤, 馬之行空, 始若不見其妙, 而探之愈深, 引之愈長, 則于虞有取焉. 然此非謂道學名節論, 乃爲詩論也."(『麓堂詩話』 八)

7) "劉夢吉, 古選學陶冲淡, 有句無篇. 歌行學杜, 「龍興寺」「明遠堂」等作, 老筆縱橫, 雖間涉宋人, 然不露儒生脚色. 元七言蒼勁, 僅此一家. 至律絶種種頭巾, 殊可厭也."(『詩藪』 外編卷六)

컬어 "시적 재능이 탁월하며, 호탕하여 얽매이지 않는 기개가 많다"[9]라고 하여 평가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劉因의 詩論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그의 시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시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위상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2. 劉因의 詩論

劉因의 詩論을 담은 「叙學」은 元詩 이론의 기초를 닦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詩經』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 先秦 三代의 책 중에서는 『六經』 『論語』 『孟子』가 위대하다. 『六經』의 공부는 반드시 『詩經』부터 시작해야 한다. 옛 사람들은 열 명 중의 셋은 『詩經』을 암송했는데, 『詩經』은 性情을 음영하고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고 中和의 음이 뜻에 있다. 사람이 현명치 못한 것은 혈기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詩經』은 性情을 인도하고 혈기를 열어주어서 어려서 늘 歌誦의 소리를 듣게 하면 자라서 풍자와 찬미의 뜻을 잃지 않아 혈기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막힐 수 있겠는가?[10]

이 말 속에는 劉因의 修身과 濟世의 이상이 담겨있는데, 이로부터 그가 시의 敎化 기능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學詩過程을 되돌아보면서 詩史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귀납하였다.

---

8) "風格高邁而比興深微, 闖然升作者之堂. 講學諸儒未有能及之者."(『四庫全書總目·靜修集提要』)

9) "詩才超卓, 多豪邁不羈之氣."(『元詩選』 初集 129쪽)

10) "先秦三代之書, 『六經』 『語』 『孟』 爲大. 治 『六經』 必自 『詩』 始. 古之人十三誦 『詩』, 蓋 『詩』 吟詠情性, 感發志意, 中和之音在意焉. 人之不明, 血氣蔽之耳. 『詩』 能導情性而開血氣, 使幼而常聞歌誦之聲, 長而不失刺美之意, 雖有血氣焉得而蔽也."(『叢書集成初編』 本 『靜修集』 卷一; 『四庫全書』 本 『靜修集』 續集卷三.)

> 시를 배우는 것은 六藝를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詩經』이 그 중의 지극한 것이다. 『詩經』의 흐름이 시대를 내려와 辭賦가 되었으니, 「離騷」와 『楚辭』가 그 중의 지극한 것이다. 辭賦는 본래 시의 한 부류이다. 秦漢 이후로 마침내 賦가 전적으로 성행하여 「三都」와 「兩京」에 이르러 지극하게 되었다. 그러나 對偶를 따지고 韻을 다는 것은 시의 격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른바 源流는 멀지만 더 이상 분화되지 않은 것이다. 魏晉 이후로 시학이 날로 번성했으니, 曹植·劉楨·陶淵明·謝靈運이 그 중의 지극한 자들이다. 隋唐 이후로는 시학이 날로 변했는데, 변하여 바름을 얻었으니, 李白·杜甫·韓愈가 그 중의 지극한 자들이다. 周宋 이후로는 시학이 날로 쇠약해졌는데, 쇠약해진 다음에 강해졌으니, 歐陽修·蘇軾·黃庭堅이 그 중의 지극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作詩者는 『詩經』을 배우지 못하면 曹植·劉楨·陶淵明·謝靈運을 배울 수 없고, 曹植·劉楨·陶淵明·謝靈運을 배우지 못하면 李白·杜甫·韓愈를 배울 수 없고, 李白·杜甫·韓愈를 배우지 못하면 歐陽修·蘇軾·黃庭堅을 배울 수 없다. 그런데 晩唐의 맥 빠진 것을 본받고, 溫庭筠·李商隱의 신기함을 배우고, 盧仝의 기괴함을 모방하는 것은 시를 짓는 방법이 아니다.[11]

이와 같이 그는 『詩經』에서부터 宋代의 歐陽修·蘇軾·黃庭堅에 이르기까지 學詩의 순서와 대상을 제시한 다음에, 晩唐을 본받는 것은 "시를 짓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元代 詩壇의 미래를 일면 예견한 것이기도 하다.[12]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시에 風骨이 있어야 하고,

---

11) "學詩當以六藝爲本, 三百篇, 其至者也. 三百篇之流, 降而爲辭賦. 「離騷」『楚辭』, 其至者也. 辭賦本詩之一義. 秦漢而下, 賦遂專盛. 至于「三都」「兩京」, 極矣. 然對偶屬韻, 不出乎詩之律. 所謂源遠而未益分者也. 魏晉而降, 詩學日盛, 曹、劉、陶、謝, 其至者也. 隋唐而降, 詩學日變, 變而得正. 李、杜、韓, 其至者也. 周宋而降, 詩學日弱, 弱而後强, 歐、蘇、黃, 其至者也. 故作詩者, 不能三百篇, 則曹、劉、陶、謝; 不能曹、劉、陶、謝, 則李、杜、韓; 不能李、杜、韓, 則歐、蘇、黃. 而乃效晩唐之萎苶, 學溫、李之尖新, 擬盧仝之怪誕, 非所以爲詩也."

12) 그의 시론은 晩唐詩의 학습을 배척한 楊維楨의 詩風에 대해 미리 평론을 가한 것과 같다. 楊維楨의 '鐵崖體'가 詩壇을 풍미하게 될 상황을 그가 미리 예측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高古해야 하며, 沈鬱悲壯과 淸剛勁健한 기운이 풍부해야 한다고 제창하였는데, 이것은 元好問의 論詩 주장을 계승한 것이다. 劉因은 元好問을 숭배하여 「跋遺山墨迹」에서 "후생은 유산 선생을 알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그의 시가를 읊을 때마다 탄식한다"[13]라고 하였으니, 이로부터 元 북방 시인에 대한 元好問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劉因은 王維의 시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輞川圖記」에서 王維의 사람됨과 詩畵에 대해 평했는데,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왕유는 탁월한 재능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를 高人으로 여겨서, 그쪽도 자랑스럽게 前身을 畵師로 자처했지만 그의 인품은 보잘 것이 없다"[14]라고 하였고, 그의 시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朱子는 왕유의 시를 일러 淸雅하긴 하지만 시들고 쇠약하여 氣骨이 부족하다고 하였다"[15]라고 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로부터 儒者의 氣槪가 바로 劉因 미학정신의 근본이며 시학 주장임을 알 수 있다.

3. 劉因의 詩

劉因의 詩文別集인 『靜修集』은 판본이 여러 가지인데, 흔히 보이는 것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元刊小字本으로 22卷이며, 주된 판본으로 『四部叢刊』 本이 있다. (2) 明 弘治 18년(1505) 刊本으로 30권(2권의 부록 포함)이며, 『四庫全書』는 이것을 근거로 수록하였다. (3) 淸 光緖 5년(1879) 刻本으로 12권이며 明人 方義壯이 편찬한 10권 본에 의거하여 重編한 것인데, 주된 판본으로 『畿輔叢書』 『叢書集成初編』 등이 있다. 元刊小字本은 劉因集의 善本인데, 卷1부터 卷14에 75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靜修丁亥集』이 있는데, 순전히 시집이다. 판본에 따라 수록된 작품 수

13) "晩生恨不識遺山, 每誦歌詩必慨然."

14) "維以淸才位通顯, 而天下復高人目之, 彼方偃然以前身畵師自居, 其人品已不足道."

15) "故朱子謂維詩雖淸雅, 亦萎弱少氣骨."

가 일치하지 않은데, 중복된 것을 빼면 劉因의 현존 시는 약 1,000수 내외가 된다. 이 중에서 顧嗣立의『元詩選』初集에 그의 시 234首가 選錄되어 있다. 이들을 내용적으로 분류해보면 抒情詩・懷古詩・詠物詩・寫景詩・社會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고전시가 기본적으로 서정시인 데서 알 수 있듯이 劉因의 시도 懷古・詠物・寫景・社會詩적인 내용에 서정이 담겨 있어 그와 같은 분류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한 시인의 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접근방식이라고 하겠다.

3.1. 抒情詩

劉因의 서정시는 理學의 영향을 받아서 의론을 좋아하고 道를 논하는 경향이 간혹 있긴 하지만 氣骨이 있고 격조 또한 높다. 먼저 그의 오언율시「半世」를 보자.

半世恒棲託, 반평생을 언제나 자연에 의탁해 살다보니
孤生備險艱. 외로운 삶은 온통 가난과 고생뿐이었다.
寡言非蘊畜, 과묵한 것은 가슴에 묻어두어서가 아니고
褊性類淸閑. 편협한 천성은 청정과 유유자적에 가깝다.
生計朝霞上, 생명 보존의 방편은 아침놀에 있고
交情暮雨間. 상호 교류의 정은 저녁 비 사이에 있다.
柴門本無客, 사립문에는 본래 드나드는 객이 없는데
幽僻況長關. 멀고 외진 곳이라 더구나 늘 닫혀 있다.

시인이 사는 곳이 외진 곳이어서 본래 찾아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대문을 열 기회가 별로 없다고 했지만, 기실 그에게는 내방객이 없지 않았다.『元史』「劉因傳」에 의하면 "公卿 중에는 保定을 지나는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劉因의 명성을 듣고 왕왕 만나보러 왔다. 그러나 劉因은 대부분 사양하고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그를 모르는 자들 중에는 간혹 그를 오만하다고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16]라고 하였는데, 이 시를 통해 그의 삶의 방

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즉, 그는 가난하지만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사람들과의 교유를 가급적 피하고 조용히 사색과 작시를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살고자 하였다.

劉因은 청정한 자연 뿐만 아니라 청정한 생활을 애호하였다. 다음 오언율시 「宿田家」를 보자.

偶到田家宿,	어쩌다 농가에 가서 묵게 되었는데
歡迎如遇仙.	신선을 만난 듯이 환영을 받았다.
杯盤陳戶側,	술잔과 접시를 창문 옆에 늘어놓고
妻子拜燈前.	처자가 등불 앞에서 예를 올린다.
靑白眼誰靜,	靑眼視와 白眼視를 누가 그만둘까?
炎凉情易偏.	세태의 염량은 치우치기 쉬운 법.
豈知人世外,	누가 알리오 이 속세를 벗어나면
還有野夫憐.	아직도 마음 따뜻한 농부가 있음을.

속세의 사람들은 모두 상당히 현실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을 만나면 백안시한다. 그러다보니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살갑게 굴며 접근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하며 멀리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세태의 염량이다. 그러나 그런 속세를 벗어나면 아직도 순박하고 마음 따뜻한 농부가 있어서 시인같이 가난한 書生을 신선을 만난 듯이 대해주니 고맙기 그지없지만 한편 그렇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다. 세태의 염량을 떠나 고고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박하고 인정 있는 인간애를 추구했던 시인의 지향이 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다음에는 시인이 山寺에 가서 묵은 뒤 새벽에 일어나서 지은 칠언절구 「山寺早起」를 보자.

松窗一夜遠潮生,	솔빛 창가에 밤새도록 조수 소리 들려와

16) "公卿過保定者衆, 聞因名, 往往來謁. 因多遜避, 不與相見. 不知者或以爲傲, 弗恤也."

斷送幽人睡失明.	隱者가 날 밝도록 자게 놓아두질 않는다.
夢覺不知春已去,	꿈에서 깨었어도 봄이 갔는 줄 몰랐는데
半簾紅雨落無聲.	주렴 반쯤 붉은 꽃비가 소리 없이 내렸다.

孟浩然의 「春曉」를 연상시키는 이 시는 意象이 맑고 선명하며, 자연을 사랑하여 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솔바람 소리를 멀리서 들려오는 조수 소리에 비유하여 강가의 분위기를 낸 것과 늦잠 자는 것을 '睡失明'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인의 뛰어난 표현기교와 수사기법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의 자연에 대한 애호는 오언절구 「村居雜詩五首」에도 잘 나타나 있다.

隣翁走相報,	이웃의 노인이 달려와 알리느라
隔窗呼我起.	창문 밖에서 일어나라고 부른다.
數日不見山,	며칠 동안 산이 보이지 않았는데
今朝翠如洗.(제1수)	오늘 아침은 씻은 듯이 푸르다고.
黃昏雨氣濃,	황혼 무렵 비 내릴 기운이 짙어
喜色滿南畝.	희색이 남쪽 전답에 가득하다.
誰知一夜風,	누가 알았으랴 간밤에 바람 불어
吹放門前柳.(제3수)	문 앞의 버들솜을 다 날려보낼 줄.

이와 같이 시인은 비갠 후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산의 아름다운 모습과 비바람에 사라져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을 직접 표현하는 대신에 시인의 단잠을 깨우는 이웃의 노인과 다 날아 가버린 버들개지를 언급하여[17] 흥취와 해학이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내었다.

劉因은 金과 南宋의 멸망을 직접 목도한 遺民은 아니지만 漢族의 후예로서 송나라 國運의 흥망은 필경 그에게 일종의 응어리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17) 옛 중국인들은 늦은 봄에 흩날리는 버들개지가 봄을 싣고 가버려서 버들개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여름이 온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南宋 理宗이 가로 폭으로 그린 '南樓風月圖'를 보고 쓴 「南樓」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과 깊은 사색을 엿볼 수 있다.

登臨秋思動鄉關,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니 가을이라 고향생각이는데
展盡晴波落照間.	낙조 사이로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구나.
嘆老自非緣白髮,	늙음을 탄식하는 건 물론 백발 때문이 아니고
愛閑元不爲靑山.	한적을 좋아하는 건 원래 청산 때문이 아니다.
幾經分合世良苦,	분리와 합병을 몇 번 거치니 세상이 참으로 쓰고
不管興亡天自閑.	흥망에 아랑곳없이 하늘은 스스로 한가하구나.
初擬凭欄浩歌發,	애초엔 난간에 기대어 浩歌를 부르려 했는데
壯懷空與白鷗還.	장한 포부는 부질없이 갈매기와 함께 돌아온다.

백발이 성성하다고 늙음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청산이 좋아서 한적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는가? 시인의 이와 같은 술회가 역사에 대한 감개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지만 애도의 정은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다.

劉因은 元 世祖 쿠빌라이의 관직 제의를 사양한 이후 은거생활을 계속하면서 대량의 和陶詩를 썼는데, 여기에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和擬古九首」

鬱鬱歲寒松,	울창하게 솟아있는 한겨울의 소나무
濯濯春風柳.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해맑은 버드나무.
與君定交心,	그대와 벗이 되어 사귀는 마음
金石不堅久.	금석도 이처럼 굳고 오래가지 않으리.
君衰我不改,	그대가 노쇠해도 내 마음 변치 않아
重是平生友.	중요한 건 우리가 평생의 벗인 사실.
相期久自醉,	오래도록 스스로 취하길 기약했으니
中情有醇酒.	마음에 진하고 깨끗한 술이 있는 것.
義在同一家,	의리가 동일한 집안에 있으니

何地分勝負.	어느 곳에서 승부가 나누어질까?
彼此無百年,	피차 모두 백년을 살지 못하니
幾許相愛厚.	얼마나 서로 아끼고 사랑할까?
持刀斷流水,	칼로 흐르는 물을 끊는 것과 같아서
纖瑕固無有.(제1수)	작은 흠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시인은 이 시에서 먼저 陶淵明을 흠모하는 자신의 마음이 金石보다 견고함을 언급하고, 둘 다 백년을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이라 함께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긴 하지만 자신도 陶淵明의 변치 않는 벗이 되어 고결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하였다.

陶淵明은 元詩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시인이어서 隱逸의 情懷는 元詩 뿐만 아니라 元詞와 元曲의 주된 내용이었다. 劉因의 「和陶詩」[18]는 元代 최초의 것은 아니지만 元代의 和陶詩 기풍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3.2. 懷古詩

劉因에게는 적지 않은 수의 懷古詩가 있는데, 이는 그가 처한 시대 및 그의 신세와 깊은 관련이 있다.

劉因은 선비 집안 출신으로서 조부 劉秉善은 金 貞祐(1213-1216) 연간에 왕실을 따라 南遷하였고, 金이 멸망할 무렵에 그의 부친 劉述이 가족을 이끌고 북방으로 돌아왔다. 金이 멸망한 후 劉述은 학문에 힘써 性理說에 조예가 깊게 되었다. 얼마 후 元 朝廷이 초빙하여 武邑令이 되었지만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돌아왔는데, 진정한 이유는 金 왕실의 유민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집안 내력으로 인해 劉因도 金 왕실에 대해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마음이 그의 시에도 반영되어 있다.

18) 『靜修集』 卷三.

「七月九日往雄州」

秋聲浩蕩動晴雲,	가을 소리 호탕하여 흰 구름을 움직이고
感慨悲歌氣尙存.	감개에 젖어 悲歌를 부르니 기상이 남아 있다.
灑落規模餘顯德,	기개가 대범하니 현저한 미덕이 넘쳐나고
承平文物記金源.	태평성대의 문사가 금나라 역사를 기록한다.
生存華屋今焦土,	남아있던 화려한 집이 지금은 초토가 되었고
忠孝遺風自一門.	충효의 유풍은 절로 하나의 문호가 되었다.
白髮相逢幾人在,	백발이 되어 상봉하려니 몇 사람이나 있을까?
蒼煙喬木易黃昏.	푸른 연기 속의 교목이 황혼에 모습을 바꾼다.

이 시 외에 「金太子允恭墨竹」「翟節婦」「陳氏莊」 등의 시를 통해 볼 때 그가 元 조정에 출사하지 않은 것은 선조들의 일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宋 王朝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劉因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그가 23세 때 몽고 왕조는 국호를 '大元'으로 바꾸었고, 28세 때 元軍이 臨安을 점령하였고, 다시 3년이 지난 후 南宋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였다. 蘇天爵은 「靜修先生劉公墓表」에서 "元軍이 宋을 정벌하자 선생은 「渡江賦」를 지어 그 일을 슬퍼하였다"[19]라고 썼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渡江賦」는 至元 6년(1269)에 지어졌으니 元軍이 본격적으로 남송을 정벌하기 5년 전의 일이다. 郝經이 南宋에 사신으로 가서 억류되어 9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자 元 왕조는 이를 군대를 일으킬 구실로 삼았는데, 賦에서는 '北燕處士'와 '淮南劍客'이 변론하는 형식을 빌려 宋 왕실이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 劉因의 「憶郝伯常」시는 아마도 같은 시기에 지어졌을 것인데, 그 시에서는 郝經을 蘇武에 비유하며 마지막에서 "平南將軍에게 신속히 서신을 부쳐, 서둘러 水軍을 益州로 내려보내리"[20]라고 썼다. 그 때 劉因의 나이는 21세였다. 이를 통해 볼 때 劉因은 젊어서 몽고 왕조에 의한 중국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 같다. 더구나 그는 15세 전후에 쓴 시에서 建功立業의 뜻을 표현하여 "어찌 공명에 뜻을 두지 않으랴? 공명을

19) "王師伐宋, 先生作「渡江賦」以哀之." (『滋溪文稿』 卷八)

20) "飛書寄與平南將, 早放樓船下益州."

찾는 것이 늦지 않았다"[21]라고 하였다. 그러나 31세가 되어서는 출사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元軍이 臨安을 함락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다. 그는 송 왕조의 멸망에 감개가 깊어서 「書事三首」(제2수)에서 "침상이 지금은 또 누구에게 속하는가? 강남에서 머리 돌려 바라보니 적의 깃발이 보인다. 행인이 멀리 항복한 왕을 가리키며 하는 말, 마치 後周의 일곱 살 아이 같구려"[22]라고 하였으니, 이 시는 남송의 어린 황제 趙㬎이 북상한 뒤에 지어졌을 것이다.

회고시는 그가 인생을 음미하고 운명의 수수께끼를 탐구해보는 운반체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회고시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쟁의가 많고 내용이 풍부한 작품 군을 구성한다. 그가 白溝河를 지날 때 쓴 2수의 칠언율시는 매우 유명하여 대부분의 元詩 選本에 수록되어 있다. 「渡白溝」는 개인의 체험으로부터 주제로 들어가고 있다.

薊門霜落水天愁, 계문에 서리 내려 수평선에 슬픔이 이는데
匹馬衝寒渡白溝. 필마에 의지해 추위를 뚫고 백구를 건넌다.
燕趙山河分上鎭, 燕과 趙 지역의 산하는 上鎭에서 나뉘었고
遼金風物異中州. 요나라와 금나라의 풍물은 중원과 다르다.
黃雲古戍孤城晩, 저물녘 누런 구름 뒤덮은 오래된 변방의 孤城
落日西風一雁秋. 황혼에 가을바람 맞으며 날아가는 외기러기.
四海知名半凋落, 이 세상에 이름을 아는 이 반은 죽었으니
天涯孤劍獨誰投. 하늘가에서 외로운 검을 누구에게 의탁할까?

시인은 「白溝」에서 역사의 운명에 대한 사색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

寶符藏山自可攻, 부절을 常山에 감추어 代國을 취할 수 있었건만[23]

21) "豈不志功名, 功名來未遲."(「擬古」)

22) "臥榻而今又屬誰, 江南回首見旌旗. 路人遙指降王道, 好似周家七歲兒." 여기서 '後周의 일곱 살 아이'는 서기 960년 趙匡胤이 陳橋兵變을 일으키자 항복한 後周의 恭帝 宗訓을 가리킨다. 그 때 그는 일곱 살이었다.

兒孫誰是出群雄. (송나라는) 자손 중에 누가 출중한 영웅이었나?
幽燕不照中天月, 幽와 燕 지역은 중천에 뜬 달이 비추지 못했으니
豊沛空歌海內風. 沛縣 豊邑에서의 「大風歌」만 부질없게 되었구나.
趙普元無四方志, 趙普에게는 본래 사방을 통일할 뜻이 없었으니
澶淵堪笑百年功. 澶淵의 和議로 얻은 백년의 공을 비웃을 수 없구나.
白溝移向江淮去, 白溝의 국경선이 淮河로 옮겨가고 말았으니
止罪宣和恐未公. 다만 徽宗에게 죄를 돌리는 건 불공평한 듯하다.

劉因은 이 2수의 시에서 송 왕조가 개국 초기에 遼나라에게 계속 타협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결국 북방의 영토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서술하였다. 白溝는 지금의 河北省 容城縣 동쪽에 있는 작은 하천에 불과했지만 북송 때에는 宋과 遼의 국경선 역할을 하여 '界河'라고도 불렀다. 劉因이 이곳을 지나갔을 때 白溝는 이미 국경선 역할을 하지 못하여 시인은 말에 몸을 맡긴 채 남쪽으로 날아가는 외기러기를 바라보며 쓸쓸히 물결을 건넜다. 그가 그렇게 白溝를 건넌 후 白溝河는 일종의 상징이 되었고, 시인 자신도 승화를 완성하였다. 懷古라지만 자신을 그 속에 두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劉因 시의 특징이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懷古詩는 議古詩이기도 하다.

劉因은 蒙古가 중국 전체에 군림하는 것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遼·金 이래 이민족이 북방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와 같은 사상은 五言長詩 「燕歌行」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칠언율시 「易臺」에도 비슷한 사상이 담겨 있다.

望中孤鳥入消沉, 바라보니 외로운 새는 멀리 사라져가고
雲帶離愁結暮陰. 구름은 離愁를 띠고 저물녘을 흐리게 한다.
萬國山河有燕趙, 만국의 산하에는 燕나라와 趙나라가 있었고

23) 春秋時代 毋卹이 아버지 趙簡子가 常山에 부절을 감추어둔 뜻이 代國을 취하는 데 있음을 간파하여 太子가 되었다는 故事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것으로 宋과 幽·燕의 관계를 趙와 代國의 관계에 비유한 것이다. 『史記』「趙世家」 참조.

百年風氣尙遼金. 백년의 기풍은 요나라와 금나라를 숭상한다.
物華暗與秋容老, 아름다운 경물은 어느덧 가을 되어 시들고
杯酒不隨人意深. 술은 사람 마음의 깊이를 따라주지 않는다.
無限霜松動巖壑, 끝없이 늘어선 霜松이 巖壑에서 움직이니
天敎搖落助淸吟. 하늘이 조락케 해 맑은 읊조림을 돕는다.

이 시는 시인이 易臺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며 느낀 감회를 쓴 것일 것이다. 易臺는 河北省 易州에 있는 것으로, 戰國時代 燕 昭王이 세운 '黃金臺' 유적이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의 정통은 몽고에 있지 않고 遼와 金 兩朝에도 있지 않으며, 南宋에 있어야 했다. 이 외에도 劉因은 「晨起書事丁丑五月念八日」시에서 南宋의 멸망을 애도했는데, 丁丑은 至元 14년(1277) 杭州가 함락된 이듬해이다. 이 長詩는 꿈속에서 본 것을 기록하는 형식을 사용했는데, 日月星辰의 消長으로 國運의 盛衰를 은유하였다. 다만 꺼리는 바가 있어서 함의가 회삽하다. 남송의 멸망을 애도한 시를 더 들어본다.

「海南鳥」
越鳥群飛朔漠濱, 남방의 새가 떼 지어 북방 사막 가로 날아오니
氣機千古見眞純. 그 옛날 邵雍의 地氣說이 검증되었음을 본다.[24]
紇干風景今如此, 紇眞山의 풍경이 지금 이와 같으니[25]
故國園林亦暮春. 고향의 동산 숲도 봄이 저물고 있겠지.
精衛有情銜太華, 精衛鳥는 정이 있어 西山의 돌을 물어 나르고
杜鵑無血到天津. 天津에 이른 두견은 더 이상 토할 피가 없다.
聲聲解墮金銅淚, 소리마다 망국의 눈물을 흘릴 줄 아니

24) 北宋의 理學者 邵雍은 天津橋(지금의 河南省 洛陽市 남서쪽에 있음) 가의 초려에 살았는데, 하루는 두견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울해하며 "세상에 이제 일이 많겠구나!"라고 하였다. 누군가가 그 까닭을 물으니 "세상이 잘 다스려질 때는 地氣가 북에서 남으로 가고, 어지러울 때는 남에서 북으로 온다. 지금 남방의 地氣가 극성하여 새들이 먼저 그 氣를 얻은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眞純'은 朱熹가 邵雍의 학문을 찬양하여 한 말을 차용한 것이다.

25) '紇干'은 紇眞山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의 山西省 大同市 동쪽에 있다.

未信吳兒是木人. 남방 인이 나무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劉因은 몽고 통치 하의 北中國에서 출생하여 金과 南宋의 멸망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과 인민의 질고를 직접 묘사하기보다는 역사 진행에 대한 반성과 고찰을 통해 亡國의 아픔과 교훈을 서술한 경우가 많다. 시인은 이 시에서 적절한 전고를 동원하여 기탁한 뜻을 깊게 하는 수법으로 南宋의 멸망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白雁行」
北風初起易水寒, 북풍이 처음 일자 역수가 차가워졌고
北風再起吹江干. 북풍이 두 번째 이니 장강 가에 불었고
北風三起白雁來, 북풍이 세 번째 일자 흰 기러기가 와서
寒氣直薄朱崖山. 한기가 직접 주애산에 몰아닥쳤다.[26]
乾坤噫氣三百年, 하늘과 땅이 기운을 내뿜은 지 삼백년
一風掃地無留殘. 한 번 바람이 땅을 휩쓰니 남아있는 게 없다.
萬里江湖想瀟灑, 만 리 강산이 말쑥해질 것을 생각하며
佇看春水雁來還. 물끄러미 봄물을 바라보니 기러기 돌아온다.

이 칠언고시는 상징과 비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금나라와 송나라의 멸망을 애도한 것이다. 여기서 北風은 金과 南宋을 멸망시킨 蒙元 세력을 가리키고, 易水는 河北 지역을 가리킨다. 따라서 首句는 몽고의 군대가 금나라를 유린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실제로 金 宣宗이 開封으로 도읍을 옮긴 이듬해(1215)에 燕京이 몽고군에게 점령되어 河北 전체가 몽고의 수중에 들어갔다. 제2구는 1234년 초 몽고군이 金을 멸망시키고 江淮 지역을 넘보게 된 것을 가리킨다. 제3, 4 두 구는 1279년 몽고군이 廣東의 朱崖山에서 항

26) 朱崖山은 崖山으로, 지금의 廣東省 新會縣 南海에 있다. 南宋 末年에 張世傑 · 陸秀夫 등이 趙昺을 황제로 받들고 이곳에서 元軍에 저항했으나 버티지 못하고 陸秀夫가 어린 황제를 등에 업은 채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함으로써 南宋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거하던 南宋의 잔존세력을 없애버린 것을 가리킨다. 이 시의 후반부는 삼백 년 동안 지속된 宋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애도의 심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였다.

劉因이 나중에 송의 멸망을 탄식한 작품을 썼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元 왕조의 중국 통일을 옹호하는 태도에서 한족 정권과 몽고족 정권에 대해 분명한 親疎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교양과 애착을 지닌 儒者로서 그는 자신의 고국이 儒家의 道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元 朝廷의 초빙을 사양하지 않는 것이 바로 "道不尊"이라고 한 그의 말은 元 朝廷의 통치자들이 儒學과 漢法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親疎의 감정은 이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3.3. 詠物詩

劉因의 시는 衆體를 겸비하였고 다룬 제재가 광범하여 적지 않은 詠物詩를 남겼는데, 이것이 元代 영물시의 규범이 되어 元詩를 대표하는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먼저 그의 칠언절구 「宋理宗南樓風月橫披二首」를 보자.

試聽陰山敕勒歌,	陰山에서의 敕勒歌를 들어보니
朔風悲壯動山河.	삭풍이 비장하여 산하를 뒤흔든다.
南樓風月無多景,	南樓風月 그림은 경치가 많지 않아
緩步微吟奈爾何.(제1수)	천천히 걸으며 읊조리지만 너를 어찌 하리!
物理興衰不可常,	事理의 성쇠는 정해진 것이 없어서
每從氣韻見文章.	늘 작가의 기운을 따라 문장을 본다.
誰知萬古中天月,	누가 알랴 만고의 중천에 뜬 달을
只辦南樓一夜凉.(제2수)	南樓의 밤이 서늘한 것만 갖추었구나.

이 2수의 시는 劉因이 南宋의 황제 理宗이 그린 '南樓風月橫披'를 보고

쓴 것인데, 모두 지나간 역사에 대해 술회한 것이다. 理宗은 南宋에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제왕으로 40년이나 되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宋 理宗은 가로 폭으로 '南樓風月' 한 폭을 그리고는 "并在南樓一夜凉"句를 써 넣었다고 한다. 劉因의 題詩는 이로 인해 지은 것이다. 宋 理宗으로부터 劉因은 宋 太祖 趙匡胤의 시 「月出」: "바다 밑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온갖 산들이 캄캄했는데, 하늘 중앙에 이르자 만국이 밝구나"[27]句를 연상하였다. 그의 시는 결국 흥망성쇠의 변화를 역사 과정의 한 조성부분으로 귀결시킨 것인데, 그와 같은 흥망성쇠에 대한 감회가 개인의 신세 배경을 벗어나 역사 자체로 환원되었다고 하겠다.

劉因에게는 이와 같은 題畵詠物詩가 많이 있다.

「采菊圖」

廟堂袞袞宋元勛,	조정에는 劉宋의 功臣들이 수두룩하고
爭信東籬有晉臣.	신의를 다투는 東籬에는 晉의 신하가 있다.
南山果識悠然處,	남산에서 과연 편안한 곳을 알 수 있다면
不惜寒香持贈君.	寒香을 아끼지 않고 그대에게 갖다 드리리.

이 시는 陶淵明이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따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고 쓴 것인데, 그림의 내용을 묘사하는 대신 그림을 보고 촉발된 자신의 감개와 포부를 기탁하였다. 즉, 잠시이긴 하지만 晉의 신하였으므로 새로 들어선 宋 王朝에 出仕하지 않고 은거하며 가난하지만 고고한 삶을 살았던 陶淵明을 기리며, 자신도 그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의 題畵詠物詩 한 수를 더 들어본다.

「幼安濯足圖」

漢家無復雲臺功,	한나라에는 더 이상 雲臺의 공이 없고[28]
平生不識大耳公.	(管寧은) 평생 大耳公 劉備를 알지 못했다.

27) "未離海底千山墨, 才到天中萬國明,"(『宋詩紀事』 卷一)

28) 後漢 王朝는 洛陽 南宮의 雲臺에 中興功臣들의 그림을 그려놓았었다.

眼中天意鏡中語, 그의 눈에는 하늘의 뜻이 거울 속의 말이어서
此身只有扁舟東. 그는 다만 편주를 타고 요동으로 가고 말았다.
關東諸公亦英雄, 관동의 여러 공자들은 역시 영웅호걸이어서
百年能辨山陽封. 백년 세월에 (獻帝를) 山陽侯로 바꿀 수 있었다.
歸來老柏號秋風, 돌아오니 늙은 측백은 가을바람에 울부짖고
世事悠悠七十翁. 칠십 노인에게 세상사는 요동치고 있었다.
乾坤故物兩足在, 천지간에 예전의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霜海浮雲空復空. 서리 빛 바다 위 뜬구름은 말없이 적막하다.
無刀可斷華太尉, 칼이 없어도 太尉 華歆과 단교할 수 있었고[29]
有死不爲丕太中. 죽어도 曹丕의 太中大夫는 되지 않았다.
丹靑白帽凜冰雪, 그림의 흰 모자 쓴 모습 빙설 속에 늠름하고
高山目送冥飛鴻. 높은 산 저물녘에 날아가는 기러기 바라본다.
爲問蘇家好兄弟, 사이좋은 두 형제 蘇軾과 蘇轍에게 묻나니
萬古北海誰眞龍. 만고에 걸쳐 두 北海 중 누가 참된 용인가요?[30]

이 시는 劉因이 管寧(158-241; 字 幼安)의 濯足圖를 보고 그의 행적과 晩年의 풍모를 찬양한 것이다. 後漢 末期에서 三國 初期에 걸친 격변의 시대에 참된 隱者의 삶을 살았던 管寧은 魏 文帝 曹丕가 太中大夫로 불렀으나 가지 않았고, 明帝 曹叡가 光祿勛으로 불렀을 때도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이 시를 통해 劉因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劉因은 영물시 속에 철학자로서의 관찰과 사색을 담아내기도 했다. 「飮山亭雜花卉八首」 중에서 '牡丹'을 읊은 다음 작품을 보자.

世變日以文, 세상이 날로 화려하게 변하니

29) "管寧、華歆共園中鋤菜, 見地有片金, 管揮鋤與瓦石不異, 華捉而擲去之. 又嘗同席讀書, 有乘軒冕過門者, 寧讀如故, 歆廢書出看. 寧割席分坐曰: '子非吾友也.'"(『世說新語』「德行」)

30) 建安七子 중의 한 사람인 孔融은 北海(지금의 山東 昌樂縣 西)相을 역임하여 孔北海로 불렸고, 管寧은 北海 朱虛(지금의 山東 臨朐 南東)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北海는 孔融과 管寧을 가리키는데, 蘇軾은 孔融을 추앙하고 蘇轍은 管寧을 추앙했다고 한다.

花卉亦應爾. 꽃들도 추세에 부응하는가보다.
懸知太古時, 짐작하건대 아주 먼 옛날에는
其美未如此. 아름다움이 그와 같지 않았으리.

이 시가 모란을 빌려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라면 가을의 연꽃을 읊은 다음 시는 고결한 삶을 찬양한 것이다.

「秋蓮」
瘦影亭亭不自容, 야윈 그림자 곧게 솟아 스스로 뻐기지 않고
淡香杳杳欲誰通. 담향이 멀리 퍼져도 스스로 고고할 뿐이다.
不堪翠減紅銷際, 꽃과 잎이 시드는 것을 견딜 수 없는데
更在江淸月冷中. 더욱이 강물 맑고 달빛 차가운 중에 있구나.
擬欲靑房全晩節, 연방의 푸른빛 절개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豈知白露已秋風. 백로가 되어 가을바람 부는 것을 어찌 알랴?
盛衰老眼依然在, 흥망성쇠가 늙은이 눈에는 여전히 선명하니
莫放扁舟酒易空. 술잔 빈 채로 일엽편주를 띄우지 마시게.

北宋의 理學者 周敦頤는 「愛蓮說」에서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고결한 자태를 서술한 바 있는데, 劉因은 이 시에서 자신을 秋蓮에 비유하여 신세를 기탁하였다. 감정이 진지하면서도 침통하고 理趣가 빼어나 劉因의 理學者적 기질과 문인적 소양이 잘 결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劉因은 역사 인물을 직접 영물시의 대상으로 삼아 읊기도 하였다. 다음 시를 보자.

「馮道」
亡國降臣固位難, 망국의 항복한 신하는 자리 차지하기가 어려운 법인데
癡頑老子幾朝官. 어리석고 완고한 노인은 여러 번 조정 관료가

되었네.[31]

朝梁暮晉渾閑事, 아침엔 양나라 저녁엔 진나라 섬기기가 어렵지 않았고

更舍殘骸與契丹. 더욱이 늙은이의 잔해를 거란에 바쳤다네.

馮道(882-954)는 다섯 왕조에 걸쳐 출사했던 인물로서 後唐과 後晋에서 재상을 지냈고, 거란에 붙어 太傅가 되었으며, 後漢과 後周 때 다시 太師직을 맡았고 中書令으로 관직을 마쳤다. 그는 일찍이 「長樂老自叙」를 지어 절개를 굽혀 長樂終老를 보전한 것을 자랑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의 처세에 대해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그가 비록 절개를 굽히고 다섯 왕조를 섬기긴 했지만 쌓은 업적이 적지 않으므로 그를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劉因은 元 조정의 초빙을 사양한 사람으로서 馮道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를 비판했는데, 언어가 간결하면서도 신랄하다.

3.4. 寫景詩

劉因은 은거의 삶을 살면서 북방의 맑고 상쾌한 자연풍물을 묘사한 寫景詩를 많이 남겼다. 그가 사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산보를 하면서 감흥이 일어 쓴 칠언율시 「秋郊」를 먼저 들어본다.

行過青林徑欲還, 푸른 숲길 지나 돌아오려 하는데

誰家茅屋在林間. 누구네 초가인지 숲 사이에 있다.

雲初湧出半含雨, 구름은 솟아나오며 반쯤 비를 머금었고

風漸吹開微露山. 바람이 점차 불어 살짝 산이 드러난다.

世味嘗來知懶貴, 세상의 인정을 맛보니 게으름이 귀하고

物華老盡覺秋閑. 아름다운 경물이 사라지니 가을이 한산하다.

---

31) 馮道가 거란에 투항했을 때 耶律德光이 그에게 자신을 소개해보라고 하자 그는 "재능도 없고 덕도 없는 어리석고 완고한 늙은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天敎勝境爲詩敵, 하늘이 빼어난 경치를 시의 적수로 삼아서
未許幽人穩閉關. 隱者에게 두문불출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연의 빼어난 경치는 천지가 설치한 것이어서 본래 절묘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발굴할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사람과 솜씨를 겨루어보려고도 한다. 그래서 대자연의 문장에 도전해보려면 유유자적한 생활에 익숙한 隱者라 해도 분발하여 빼어난 경치를 대적해야 하므로 대문을 닫아걸고 한적한 생활을 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劉因의 寫景詩는 이처럼 착상이 기발하고 묘사가 신선한 작품이 적지 않다. 다음의「山家」시에 그의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馬蹄踏水亂明霞, 말이 물을 밟고 가니 밝은 놀이 흩어지고
醉袖迎風受落花. 취한 소매 바람 맞으니 낙화가 들어온다.
怪見溪童出門望, 괴이한 광경에 시냇가 아이 나와 보더니
鵲聲先到我山家. 까치가 우리 山家에 먼저 알렸다고 한다.

이 시는 시인이 술을 마신 뒤에 흥이 나서 말을 타고 산 경치를 감상하다가 계곡 가에 사는 山家의 아동과 맞닥뜨린 과정을 묘사한 것인데, 묘사가 신선하고 시인의 흥취와 산가 아이의 발랄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언외에 넘쳐흐른다.

「飮山亭雨後」
山如翠浪經雨漲, 산이 비가 내려 불어난 푸른 물결 같아
開軒似坐扁舟上。 창을 여니 일엽편주에 앉아있는 듯하다.
西風爲我吹拍天, 가을바람이 나를 위해 하늘까지 불어와
要架雲帆恣吾往。 구름 돛 걸고 마음 내키는 대로 가련다.
太行一千年一靑, 太行山은 일천 년에 한 번 푸르러
才遇先生醉眼醒。 비로소 선생의 취한 눈 깬 걸 보았다.
却笑劉伶糟麴底, 외려 유령이 술밑에 있는 것을 비웃나니

豈知身亦屬螟蛉。　　이 몸 역시 배추벌레에 속함을 어찌 알랴?

이 시는 劉因이 비가 내리는 산속 정자에서 술을 마시다가 비가 그친 뒤의 산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푸른 산 속의 정자가 푸른 물결 위의 배와 같고 하늘에 뜬 구름이 돛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한 것은 역시 착상이 기발하고 묘사가 신선하다.

다음의 「偶成」시는 자연경물을 묘사하면서 생활의 정취를 담아놓은 것이다.

夢回聞雨聲,　　꿈에서 깨니 빗소리 들려오는데
忽覺是風葉.　　나뭇잎 스치는 바람소리였더라.
問予何以知,　　나에게 어떻게 아느냐고 묻기에
仰見梁間月.　　우러러 들보 사이의 달을 본다.

들보 사이로 비쳐드는 달빛을 통해 빗소리처럼 들려오는 소리의 실체가 바람소리였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는 평범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제 3, 4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성이 선문답처럼 되어 있어 신선한 느낌을 준다.

劉因의 寫景詩는 다음의 「山中月夕」처럼 경치의 묘사 속에 시인의 사색을 녹여 넣은 작품도 적지 않다.

滿懷幽思自蕭蕭,　　적막 속에 가슴 가득히 피어오르는 깊은 생각
況對空山夜正遙.　　더구나 인적 없는 산을 대하니 밤은 길기만 하다.
四壁晴秋霜著色,　　사방의 암벽은 맑은 가을에 서리로 착색되었고
一天明水月生潮.　　하늘은 맑은 물 같아 달이 조수 위로 돋는다.
歌傳巖谷聲豪宕,　　바위 골짜기로 전해지는 노래 소리 호탕하고
酒泛星河影動搖.　　술잔에 떠있는 은하수 그림자가 흔들거린다.
醉裏似聞猿鶴語,　　취중에 들리는 듯하다 원숭이와 학이 하는 말
百年人境有今朝.　　백년 세월에 과연 오늘과 같은 경치가 있다고.

이 시는 산속에서 술을 마시며 달밤을 맞은 시인이 표면적으로 주변에 전개된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한 것이지만 아무도 없는 적막한 산속에서 그의 가슴에 들어찬 깊은 생각이 무엇인지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여운을 지닌 작품이다. 그것이 金과 宋의 멸망이 주는 역사적 교훈인지, 사회의 격변 속에서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인지,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경력과 「白溝」「南樓」「飮山亭雨後」 등의 시를 통해 볼 때 그것이 매우 진지한 것임을 감지하게 한다.

3.5. 社會詩

劉因은 이민족 지배 하의 사회에 살면서 民生의 疾苦를 목도하고 그것을 시에 담았다. 다음의 「仲誠家藏張蔡公石女剪, 製香奩絕巧, 持以求予詩」는 化粧匣으로부터 백성의 고통을 묘사한 것이다.

東家健婦把鋤犁, 동쪽 집의 건장한 부인은 호미와 쟁기를 들었고
西家處女負薪歸. 서쪽 집의 처녀는 땔나무를 등에 지고 돌아온다.
哀哀正念誅求苦, 슬픔에 젖어 苛斂誅求의 고통을 생각하니
對此無言空淚垂. 그에 대해 말없이 부질없는 눈물만 흘린다.

「對菊」시 한 수를 더 들어본다.

迂疏不辦一身謀, 물정에 어두워 일신의 계책에 힘쓰지 않고
鬢髮空添四海憂. 머리에는 부질없이 세상의 근심만 더한다.
畵本流民今復見, 화책 속의 떠돌이 백성을 지금 다시 보니
詩家逃屋爲誰留. 도망간 시인의 집은 누굴 위해 남겨두나?
黃茅安得千間厦, 누런 띠로 어떻게 천 간 큰 집을 얻을까?
白布空歌萬里裘. 흰 천으로 부질없이 만리 갖옷을 노래한다.
政有南風曲中意, 정치에는 노래 속에 남풍의 뜻이 있으니[32]

32) 「南風」은 『詩經』 중의 國風을 가리킨다. 시인은 이것으로 고대의 순박한 民風을 암

可能獨醉菊花秋. 가을 국화에 홀로 취할 수 있을까?

杜甫의 「茅屋爲秋風所破歌」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에서 시인은 집 없이 떠도는 백성들의 고통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을 자책하고 있다.

劉因이 많은 독자들의 공명을 불러일으킨 「觀梅有感」은 백성에 대한 그의 관심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東風吹落戰塵沙, 봄바람이 전란의 모래먼지를 걷어냈으니
夢想西湖處士家. 西湖處士 林逋의 집을 꿈속에 그린다.
只恐江南春意減, 다만 강남의 봄기운이 줄어들까 걱정인데
此心元不爲梅花. 이런 내 마음은 본래 매화 때문이 아니다.

이 시는 아마도 元 世祖 至元 25년(1288) 봄에 지어졌을 것이다. 지난 해(1287) 11월에 世祖는 기한을 정해 강남의 도적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시의 내용이 그 일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작품 속에서 시인은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꿈에서나마 시공을 초월하여 西湖處士 林逋의 집을 찾아간다. 西湖處士의 집이 있는 강남은 곧 그가 정신적 뿌리를 두고 있는 宋, 즉 漢族이 통치하는 세계이다. 그의 고향은 河北이지만 漢族이 통치하는 그 세계야말로 그의 정신이 회귀하기를 염원하는 고향이다. 그러나 南宋은 멸망하였고, 온 중국은 蒙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때문에 시인은 여기서 자신의 걱정이 매화 때문이 아니라고 하여, 南宋 멸망 후 강남의 민생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밖에도 劉因에게는 「豳風圖」「送人官浙西」「雜詩五首」「有客」「里社圖」 등에서 백성에 대한 관심과 民生의 疾苦를 서술하였다.

이밖에도 劉因의 시에는 철학적 의론이 들어 있는 작품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 시를 보자.

시하였다.

「寒食道中」

簪花楚楚歸寧女, 아름답게 꽃을 꽂고 친정 가는 여인
荷鍤紛紛上塚人. 가래를 메고 잇달아 무덤 가는 사람.
萬古人心生意在, 만고의 인심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又隨桃李一番新. 다시 도리화를 따라서 일신한다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있고, 꽃은 피고 지지만 세월은 일년 일 년이 발전의 과정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萬古人心生意在"는 사실상 역사는 부단히 전진한다는 말로서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劉因의 시는 唐詩와 宋詩의 유산을 선택적으로 계승하여 各體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風格과 표현기교도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풍부하면서도 다채롭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이상에서 劉因의 詩論과 詩를 살펴보았다. 詩論 방면에서 그는 먼저 道學者 시인답게 시의 敎化 기능을 중시하여 『詩經』의 학습을 강조하는 한편 魏晉南北朝 시대의 曹植・劉楨・陶淵明・謝靈運과 唐代의 李白・杜甫・韓愈와 宋代의 歐陽修・蘇軾・黃庭堅을 當代의 지극한 자들로 꼽으면서 그들의 시를 배울 것을 권하였다. 동시에 그는 晩唐을 본받는 것은 "시를 짓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여 시에 風骨이 있어야 하고, 高古해야 하며, 沈鬱悲壯과 淸剛勁健한 기운이 풍부해야 한다고 제창하였는데, 그의 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창작실천이 이론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劉因은 唐代 시인 중에서 李賀를 존중하여 젊었을 때 일찍이 "나를 劉昌谷이라고 불러 달라"는 자부심을 드러냈고, 「李賀醉吟圖」시에서 李賀를 높이 평가하였다. 劉因의 고체시가 韓愈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은 사실이지만 아울러 李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어서 劉因의 寫景詩를 보면 기

발한 상상과 다채로운 표현기교를 추구한 작품이 적지 않다.

元詩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宗唐復古가 시대의 조류이자 기풍이었으며[33], 前代 詩風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거치고 南北 復古詩風이 합류된 것이 元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劉因의 시는 唐詩的 심미의식과 宋詩的 說理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元代 初期 北方詩의 과도기적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의 시에 적지 않게 들어있는 사변성분이 詩意를 약화시킨 면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시인으로서의 劉因이 지닌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의 의론은 그가 처한 시대와 사회의 고민이 반영되어 있고 역사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있기 때문에 음미할 만하다. 그의 생각에는 역사의 옳고 그름이 朝代의 성쇠에서 체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발전과정은 인생 운명의 사고를 위해 여러 가지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劉因에게는 宋의 蘇軾이나 동시대의 郝經과 마찬가지로 陶淵明의 시에 次韻한 和陶詩가 적지 않다. 이로부터 金朝에서 성행했던 '蘇學'의 유풍이 면면히 이어져 단절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劉因은 唐詩와 宋詩의 장점과 특징을 선택적으로 흡수하여 자신의 시세계를 구축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唐宋詩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14세기 이후 中國詩史의 중심은 주로 중국 남부의 江南地帶로 옮겨갔다. 북방에서는 山西에서 元好問이 나오고 河北에서 劉因이 나온 후로 詩運이 부진하여 걸출한 시인이 배출되지 않았다. 劉因은 중국 元代의 북방 시단이 침묵기로 들어가기 전에 唐宋詩의 세계를 잘 구현해낸 마지막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

33) 明 李東陽이 "宋詩는 심원하지만 唐과 멀리 떨어져 있고, 元詩는 천근하지만 오히려 唐과 가깝다."(『麓堂詩話』)라고 한 것이 간명하게 元詩의 경향을 설파한 것이다.

참고문헌

顧嗣立(1987)	『元詩選・初集』	北京 : 中華書局, 129-187
吳文治(1997)	『明詩話全編』	南京 : 江蘇古籍出版社
丁仲祜(1977)	『淸詩話』	臺北 : 藝文印書館
郭紹虞(1983)	『淸詩話續編』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鄧紹基(1991)	『元代文學史』	北京 : 人民文學出版社
楊 鐮(2003)	『元詩史』	北京 : 人民文學出版社
吉川幸次郎(1963)	『元明詩概說』	東京 : 岩波書店, 3-92
黃寶華(2002)	『中國詩學史・宋金元卷』	廈門 : 鷺江出版社, 445-459
劉達科(2007)	『遼金元詩文史料述要』	北京 : 中華書局, 123-231
丁 放(2000)	『金元明淸詩詞理論史』	合肥 : 安徽大學出版社, 33-68
張 紅(2006)	『元代唐詩學硏究』	長沙 : 岳麓書社, 33-91
蕭麗華(1998)	『元詩之社會性與藝術性硏究』	臺北 : 國家出版社
羅立剛(1999)	『宋元之際的哲學與文學』	上海 : 復旦大學出版社
錢仲聯(1994)	『元明淸詩鑑賞辭典』	上海 : 上海辭書出版社, 95-103

원고 접수일: 2008년 10월 20일
심사 완료일: 2008년 11월 15일
게재 확정일: 2008년 11월 27일

中文摘要

刘因的诗与诗论

宋龍準

众所周知，元朝的诗歌在中国诗歌史上地位较低，但在元朝，诗歌同样是正统文学的重要组成部分，诗作层出不穷，其繁荣与普及程度不亚于唐宋两朝，成果也令人瞩目。

考察元诗的发展过程可知，宗唐复古是那一时代的潮流与风气，在对前人的诗风进行反省和批判之后，便形成了元诗最突出的特点：南北复古诗风合流。考察保留至今的元诗就可以发现，元初北方诗坛上成果最突出的诗人应数刘因。

在诗论方面刘因作为道学家重视诗歌的教化作用，强调学习《诗经》的重要性，并将魏晋南北朝时代的曹植、刘桢、陶渊明、谢灵运和唐朝的李白、杜甫、韩愈及宋朝的欧阳修、苏轼、黄庭坚等列为当代最为杰出的学者，推荐人们学习他们的诗作。同时，他还指出，模仿晚唐诗风"不是作诗的方法"，提倡诗歌要有风采，要崇古，要富于沈郁悲壮和清刚劲健的精神。刘因的诗歌反映着他的创作实践与其提倡的诗论大体相符。

刘因的诗文别集《静修集》因版本不同，所收诗作也不同。现存的刘因诗歌大约有一千首。顾嗣立的《元诗选》初集中收入刘因234首诗。按其内容分类，可分为抒情诗、怀古诗、咏物诗、写景诗、社会诗等。刘因的古体诗受韩愈的影响确属事实，而李贺的影响也不少。刘因的写景诗则想象奇特，讲究表现技巧。

刘因的诗歌既具备唐诗的审美意识，又具有宋诗的说理作用，表现了元朝初期北方诗歌的过渡性格。他的诗歌中存在的思辨成分不免淡化了诗意。这便是诗人刘因的特征之一。但他的理论反映了他那个年代和社会的苦闷以及对历史的深刻思索，因而也就值得吟咏，值得品味。刘因认为，历史的对与错并非体现于朝代的兴衰，但历史的发展过程为人们思考人生和命运提供了各种选择。

此外，刘因与宋朝的苏轼及同时代的郝经一样有不少陶渊明诗歌的次韵诗。可见金朝曾经盛行过的"苏学"遗风缠绵未断。由此可见，刘因有选择地吸收唐诗和宋诗的优点与特征试图来打造自己的诗歌世界，然而他依然未能摆脱掉唐宋诗歌的藩篱。

14世纪以后，中国诗歌史的中心移到了中国南部的江南一带。北方诗坛则在山西的元好问、河北的刘因之后，未曾出现杰出诗人。可见，刘因是中国元朝时期北方诗坛进入低潮之前的最后一位表现唐宋诗风的诗人。